

장애인의 여가비용, 주관적 건강도,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보유자산의 조절효과

Exploration for quality of life, subjective health, and recreation
expense for people with disability: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assets

문준호*

Moon, Joonho

Abstr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nspect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subjective health, recreation expense, and personal assets employing the data of people with disability.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work is quality of life. Subjective health and recreation expense are independent variables. Personal assets was the moderating variable in this work. The source of data is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e study period is 2016-2018, and the number of observation is 11,391. For testing hypotheses, this research perform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unveiled that subjective health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Also, quality of life is positively influenced by recreation expense. Plus, the results showed the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assets in the association between recreation expense and quality of life. This study documen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주제어 :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y),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건강(Subjective health), 여가비용(Recreation expense),
보유자산(Personal assets)**

* 강원대학교 교수, e-mail: joonhomo0412@gmail.com

I. 서 론

국내 장애인 관련 예산운영은 2019년 약 1.37조를 지출하였고 2020년에는 1.4조의 금액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e-나라지표, 2021). 또한, 보건복지부(2021)은 2020년 동안 추가로 등록된 장애인의 인구가 8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의 인구와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삶의 질을 주요 개념으로 하고자 한다. 다수의 기존문헌들은 삶의 질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삶의 질이 탐구 가치가 있는 요인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오세일, 2019; 김혜연, 2020; 손경선·김찬룡, 2021). 삶의 질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문필동·이정화, 2019; 안서연·조미라, 2019; 원서진, 2020).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선 주관적 건강도를 독립변수로 이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여가 비용을 독립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 여가 비용은 개인의 여가를 소비하는 정도의 양과 질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김지은·이영준·오세이, 2022; 조형선·이유진·황선환, 2022).

본 연구는 보유자산의 조절효과를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의 소유는 일종의 힘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빈부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보유자산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김주영, 2021; 채종훈, 2021). 이러한 특성은 여가 비용 지출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여가 비용 지출의 형태가 개인 보유 자산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탐구에 관한 결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보유자산을 조절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의 확인을 통하여 기존연구가 미미하게 탐구한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질의 결정요인으로 주관적 건강과 여가비용의 효과를 탐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건강과 여가비용의 영향과 보유자산의 조절효과를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관련 예산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적 고찰 및 연구가설 도출

1.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지표의 하나이며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전반적인 자신의 삶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오세일, 2019; 김혜연, 2020).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인다. 한재원·이수기(2019)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윤선미·김태욱(2019)은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변금선·김기현(2019)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경숙·김윤미(2019)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장효순(2019)은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손경선·김찬룡(2021)은 요가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관련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삶의 질은 다수의 연구에서 탐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삶의 질의 결정요인

1)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을 지칭하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내용을 종합한 평가 지표이다(원서진, 2020; 이나

래, 2020). 건강상태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한 일종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와 관련된 주장을 펴고 있다(문필동·이정화, 2019; 안서연·조미라, 2019). 실증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윤영·현혜순·방활란(2020)은 농촌지역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인애(2021)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도의 삶의 질에 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손근호·김경호(2020)와 문준호·심지민·이원석(2022)은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이 주관적 건강도에 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주관적 건강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여가 비용

본 연구의 다음 영역은 여가비용이다. 여가 비용은 개인이 여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김지은 외, 2022; 조형선 외, 2022). 여가비용의 더 많은 지출은 보다 많은 혹은 질이 좋은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여가 비용의 지출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김보람·김매이, 2020; 김태환·황선환, 2020). 김진원·임구원(2020)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였고, 전양진(2019)는 중년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송진영(2021)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2. 여가 비용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보유자산의 조절효과

보유자산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의 정도를 의미한다. 보유자산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며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김주영, 2021; 채종훈, 2021). 이는, 보유자산이 많은 개인의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활동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보유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의 경우 여가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재화가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김재호·오신휘, 2015; 김자영·한창근, 2016).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재화가 제약된 상황에서 적은 단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보다 높은 효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높아 자유롭게 여가비용을 지출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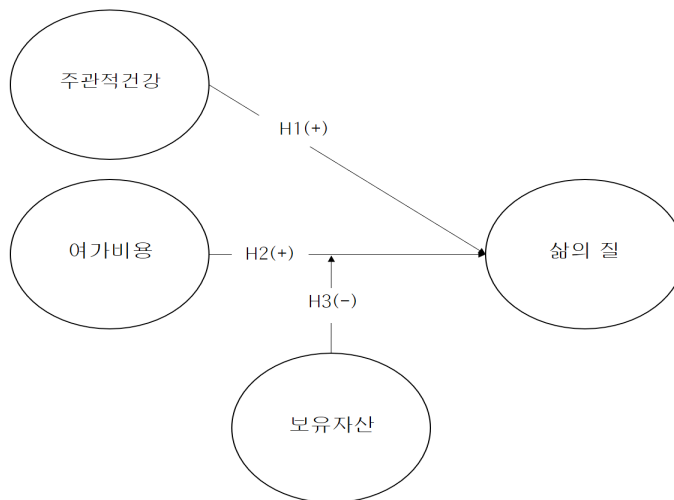
수 있는 개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단위 비용당 효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김성현, 2008; 민세진, 2016). 즉, 개인보유자산이 높은 개인들의 경우 여가비용지출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고찰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3. 보유 자산은 여가 비용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은 본 연구의 모형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의 결정요인으로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과 여가비용을 이용하였다. 모든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림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는 보유자산을 조절변수로 이용하였으며 부(-)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 수집 및 변수 측정

장애인 패널 조사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https://edi.kead.or.kr>)에서 설문 조사를 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2차 자료이다.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치를 포함하고 이후의 자료는 조사가 되지 않아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최대치를 분석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쳐서 모두 11,391부의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변수의 측정을 살펴보면, 삶의 질은 5점 척도 (1= 매우 낮다, 5 =매우 높다), 주관적 건강은 4점 척도로(1 =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4 = 매우 좋은 편이다) 측정되었다. 여가비용은 설문참여자(가 한 달 동안 지출하는 여가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측정하였다. 개인보유자산의 경우는 직접 자신의 보유 자산을 만원 단위로 써넣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금액과 관련된 변수의 단위는 10,000원이다. 성별은 명목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0 = 남성, 1 = 여성). 장애 정도의 경우 역시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다 (0 = 경증, 1= 중증). 나이의 경우는 직접적인 설문참여자의 신체 나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 있어 본 연구는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하였고 이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데이터는 패널데이터로 다수의 연도와 다수의 설문참여자(가)로 구성되어있다. 패널데이터 분석에서 생략된 변수로 인한 추정의 편향을 줄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최소자승법, 고정효과, 확률효과의 다중선행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개의 회귀모형에서 결과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가설검증 결과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소자승법은 회귀식에서 추정된 선형방정식의 지점이 각각의 관측치에서 발생하는 잔차를 최소화시켜 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Wooldridge, 2009). 다음으로, 고정효과는 연도 더미 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생략 변수 때문에 발생하는 추정의 편향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고 확률효과는 회귀모형에 관측되지 않는 효과를 집어넣어 추정의 편향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다(Wooldridge, 2009).

IV. 분석결과

1.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1>은 기술 통계 분석 결과이다. 삶의 질의 평균은 3.27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의 평균은 2.48 표준편차는 0.66으로 나타났다. 여가비용의 평균은 5.40으로 나타났다으며 표준편차는 7.99로 나타났다. 보유자산의 평균은 13,788.55, 표준편차는 26,000.40이다. 장애정도와 성별의 평균은 각각 0.32와 0.65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이의 평균을 살펴보면, 43.7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2.60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 (N = 1139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삶의 질	3.27	0.69	1	5
주관적 건강	2.48	0.66	1	4
여가비용	5.40	7.99	0	150
보유자산	13,788.55	26,000.40	0	600,000
장애정도	0.32	0.47	0	1
성별	0.65	0.47	0	1
나이	43.70	12.60	15	66

Note: 보유자산, 여가비용 (단위: 만원)

<표 2>는 상관관계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삶의 질은 주관적 건강($r = .440$), 여가비용 ($r = .211$), 보유자산 ($r = .198$), 성별 ($r = .033$)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정도 ($r = -.166$), 나이 ($r = -.118$)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관적 건강은 여가비용 ($r = .194$), 보유자산 ($r = .141$), 성별 ($r = .089$)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장애정도 ($r = -.146$), 나이 ($r = -.255$)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가비용은 보유자산 ($r = .229$), 성별 ($r = .039$)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정도 ($r = -.092$), 나이 ($r = -.114$)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유자산은 장애정도 ($r = -.076$), 나이 ($r = -.037$)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1.삶의 질	1					
2.주관적 건강	.440*	1				
3.여가비용	.211*	.194*	1			
4.보유자산	.198*	.141*	.229*	1		
5.장애정도	-.166*	-.146*	-.092*	-.076*	1	
6.성별	.033*	.089*	.039*	.017	-.041*	1
7.나이	-.118*	-.255*	-.114*	-.037*	-.202*	-.061*

Note: *p<.05

2. 가설검증결과

〈표 3〉은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세 모형의 F값의 p 값이 0.05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제시된 세 개의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0$, $p < .05$). 또한, 여가비용은 삶의 질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1$, $p < .05$). 또한, 보유자산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3.9 \times 10^{-6}$, $p < .05$). 다음으로, 여가비용×보유자산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beta = -9.8 \times 10^{-8}$, $p < .05$). 통제변인을 살펴보면, 장애정도($\beta = -0.01$, $p < .05$)와 나이($\beta = -0.01$, $p < .05$)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제시된 모든 가설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다중선형회귀분석결과

	모형1 최소자승법 $\beta(t\text{-값})$	모형2 고정효과 $\beta(t\text{-값})$	모형3 확률효과 $\beta(\text{Wald})$	가설지지여부
상수항	2.27(59.79)*	2.27(59.48)*	2.27(59.79)*	
주관적 건강	0.40(43.30)*	0.40(43.32)*	0.40(43.30)*	채택
여가비용	0.01(13.23)*	0.01(13.38)*	0.01(13.23)*	채택
보유자산	3.9×10^{-6} (14.75)*	3.9×10^{-6} (14.81)*	3.9×10^{-6} (14.75)*	채택
여가비용×보유자산	-9.8×10^{-8} (-6.54)*	-1.0×10^{-7} (-6.65)*	-9.8×10^{-8} (-6.54)*	채택
장애정도	-0.14(-10.93)*	-0.14(-10.87)*	-0.14(-10.93)*	
성별	-0.01(-1.48)	-0.01(-1.48)	-0.01(-1.48)	
나이	-0.01(-2.60)*	-0.01(-2.42)*	-0.01(-2.60)*	
F 값	498.87*	499.58*	-	
Wald χ^2	-	-	3492.09*	
R ²	.2348	.2348	.2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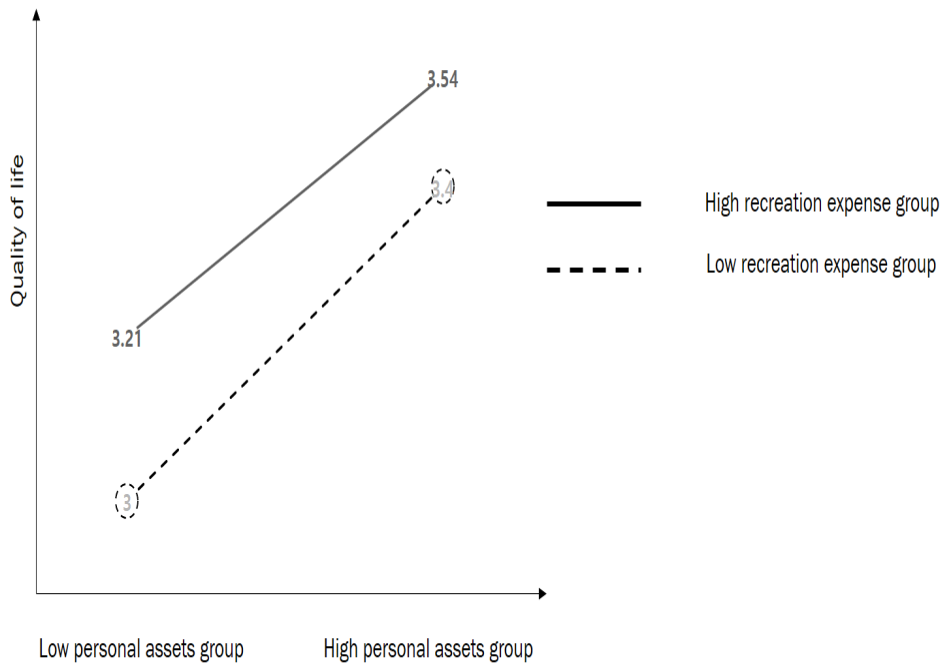
Note: 종속변수: 삶의 질, *p<.05

다음으로, <표 4>와 <그림 2>는 보유자산의 조절효과에 중앙값 분리를 이용한 추가검증의 결과를 제시한다. 저 자산집단과 고 여가비용집단의 평균은 3.21로 나타났으며 고 자산집단과 고 여가비용집단의 평균은 3.54로 나타났다. 저 자산집단과 저 여가비용집단의 평균은 3.00으로 나타났고 고 자산집단과 저 여가비용집단의 평균은 3.40으로 나타났다. 즉, 저 자산집단의 저 여가비용집단의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 자산집단의 고 여가비용집단의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조절효과 검증결과

변수	저 자산집단	고 자산집단
고 여가비용집단	3.21	3.54
저 여가비용집단	3.00	3.40

Note: 종속변수: 삶의 질



<그림 2> 보유자산의 조절효과

V.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패널데이터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들의 여가비용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장애인들보다는 자산을 적게 보유한 장애인들이 지출하는 여가비용이 삶의 질을 더욱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조절 효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연구의 결과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좋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나이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들이 지출하는 여가 비용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헌들이 여가 비용의 효과에 대하여 미진하게 탐구한 점을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여가비용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보유자산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측면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도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문헌들의 연구결과를 확장시켜 추가로 검증하였다(김윤영 외, 2020; 김인애, 2021; 문준호 외, 2022). 이는 본 연구가 갖는 다른 이론적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여가비용지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다소 제약이 되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보유한 그룹을 선별하여 여가비용을 지원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나이가 많은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측면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할 방안을 고려해 보

는 것도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도출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8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는 보다 최신데이터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현재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여가비용에 대한 측면을 주로 고려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는 보다 다양한 비용에 관한 특성을 탐구하여 결과를 도출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보람·김매이(2020). 청소년들의 학업과 여가의 균형에 따른 여가시간, 여가비용 및 행복수준. *여가학연구*, 18(3), 41-61.
- 김성현(2008). 한계효용체감과 한계대체율체감 간의 구분: 효용함수 예. *경제교육연구*, 15(2), 47-64.
- 김윤영·현혜순·방활란(2020). 농촌지역 중노년층 주민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5), 317-325.
- 김인애(2021). 장애 성인의 운동참여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건강과 IADL 의 이중매개 효과.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1), 13-25.
- 김자영·한창근(2016). 자산수준과 취업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6(3), 5-30.
- 김재호·오신휘(2015). 노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5(5), 17-28.
- 김주영(2021). 은퇴가구의 자산보유와 영향요인 분석. *부동산분석*, 7(2), 47-62.
- 김지은·이영준·오세이(2022). 스쿠버다이빙의 여가만족이 여가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61(4), 289-302.
- 김진원·임구원(2020).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4(4), 11-24.
- 김태환·황선환(2020). 진지한 여가 비용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9(6), 403-419.
- 김혜연(2020).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47-72.
- 문준호·심지민·이원석(2022). 고령화 패널 자료를 이용한 노인 지출의 삶의 만족과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식, 문화생활, 여행을 중심으로. *MICE 관광연구*, 22(3), 43-60.

- 문필동·이정화(2019). 장애인의 사회적자본과 주관적 건강: 경제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5(45), 5-30.
- 민세진(2016).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 추정. *사회과학연구*, 23(3), 7-28.
- 변금선·김기현(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 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85.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7,000명.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108
- 손경선·김찬룡(2021). 요가참여자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 사회학회지*, 34(3), 102-115.
- 손근호·김경호(2020). 연령 집단별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127-138.
- 송진영(2021).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1), 146-159.
- 안서연·조미라(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2), 519-547.
- 오세일(2019). 청년세대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88-121.
- 원서진(2020). 독거노인의 빈곤이 우울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6), 520-526.
- 윤선미·김태욱(2019). 5 성급 호텔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 직무만족, 삶의 질,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연구저널*, 33(7), 179-192.
- 이나래(2020). 한국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4), 341-347.
- 장효순(2019). 노년기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 실천학회지*, 11, 168-193.
- 전양진(2019). 신중년 소비자의 외모와 여가활동, 삶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복식*, 69(4), 181-198.
- 조경숙·김윤미(2019). 보건소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및 전문직 삶의 질. *간호행정학회지*, 25(5), 467-477.
- 조형선·이유진·황선환(2022). 라켓스포츠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편익, 진지한 여가 비용의 관계. *한국융합과학회지*, 11(3), 32-46.
- 채종훈(2021). 고령자의 자산보유구조가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문사회 21*, 12(3), 2409-2422.

한재원·이수기(2019).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분석-2016 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4(5), 33-47.

e-나라지표(2021). 장애인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8

Wooldridge, J. (2009).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 Western, Cengage Learning.

2023년 11월 15일 원고 접수

2023년 12월 31일 수정본 접수

2024년 1월 20일 최종 수정본 접수 및 게재확정

3인 익명심사 필